

[칼럼]

坂本龍馬와 飛虎

경상대학 무역학과 교수 심 종 석

지난 해 이맘때 즈음, 나는 평소 친분이 두터웠던 나호코(菜穂子)라는 일본인 선생으로부터 뜬금없는 질문 하나를 받은 적이 있었다.

“한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하나를 꼽으라 한다면, 심선생님께서는 누굴 꼽으시겠어요?”

곤혹스럽다 못해 한 순간 무척 난감했지만, 되레 한국사를 전공한 그분에게는 매우 의미있는 질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무심코 이렇게 대답했었다.

“성웅 이순신이에요”

이에 나호코 선생은 짐짓 예상하고 있었다는 눈빛과 미소를 내 시선에 맞추며, 이내 한 물음을 더했다.

“그렇다면, 심선생님은 일본인이 일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손꼽아 현재까지 추앙하고 있는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내심 나는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나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 등을 물망에 두고 그로부터 두말없는 대답을 기대했지만, 뜻밖에도 그는 또 다른 질문으로 내 기대를 일축하고야 말았다.

“무척 생소한 인물일거예요. 찾아보시고 나중에 그 사람의 일대기에 대해서 다시금 서로 얘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호코 선생과의 해후를 뒤로 그 답을 알기까지에는 그다지 오랜 시간이 걸리질 않았는데, 그 사람인 즉 다름 아닌 사카모토 료마(坂本龍馬 : 1835-1867)라는 인물이었다.

사카모토 료마, 과연 그는 어떠한 인물이었기에 지금까지 일본인의 가슴속에 살아 숨쉬며 있는 것일까? 나는 그 이유를 후일 나호코선생이 보내 준 책 한 권을 통해 찾아 알 수 있었다.

료마는 33년이라는 짧은 생애를 지나쳤지만, 새로운 세계로의 비약을 꿈꾸며 고비마다 불꽃같은 열정으로 시대의 물줄기를 옮겨가면서 현재 일본이 세계경제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결정적 단초를 제공한 일본 근대화의 선구자로서 지위를 점하고 있는 인물이다. 곧 그는 뛰어난 협상 능력을 바탕으로 따뜻한 감성과 이지적 성정으로 당시 막부(幕府 : 중앙

와 번(藩 : 지방)을 하나로 결집시킴으로써 일본이 메이지유신(明治維新)을 통해 중앙집권적인 근대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인물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당시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응당 권력을 편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천황에게 국가통치권을 이양하는 초월적 민주정치의 기틀을 창설하였음에도, 정작 료마는 권력의 핵심에서 이탈하여 일개 상선대(商船隊)를 조직하고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편으로써 국부증진에 기여하고자 당당히 국제무역에 임하게 된다.

33세의 짧은 인생이었지만 료마는 근대화의 시대적 조류에 대한 예지력,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었던 겸손함, 권력의 중심에서 과감히 이를 탈피하였던 충성심, 남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도덕적 양심, 국가와 민족이 위기에 처함에 있어 분연히 일어설 수 있었던 애국심, 경제적 부를 창출하여 건강한 삶을 도모하고자 했던 소명의식, 후세에 대한 배려와 다가올 삶을 지금보다 낮게 맞이하고자 노력하였던 진취성, 이 모든 것을 지금의 후세들에게 낱알이 전해 준 인물이었다.

이것이 료마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전해준 삶의 목적이자, 더불어 그때 나호코 선생이 내게 그렇게도 알려주고 또 자랑하고 싶었던 사카모토 료마의 인물됨이었다.

나는 이후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이 같은 사카모토 료마의 일대기를 짧게나마 소개하고 강의에 임하고 있다. 판에는 료마가 지금의 우리에게 보여준 그 자신의 일면이 작게는 무역학도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이정을 제시하고 있고, 크게는 이 나라와 민족을 계도하여야 할 한 인간으로서의 바른 사명과 소명의식을 깨닫게 하고 있다는 생각에서이다.

비단 어디 사카모토 료마에 필적할 수 있는 인물이 우리에게도 없을까마는 한편으로 내 생각 한 켠에서 되새겨지고 있는 지울 수 없는 사실은 료마의 삶의 목적에 비추어 선뜻 이 시대에 당당히 소개할 만한 위인이 떠오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내가 지금 이 글을 쓰면서 적잖이 곱씹고 있는 말 못할 회한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무릇 용호상박(龍虎相搏)이라고 했던가. 작금의 어려운 현실가운데 일본인과 나호코선생은 혹여 제2의 료마(龍馬)를 꿈꾸며 푸르른 하늘을 우러르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정녕 그 보다는 료마에 버금가는 아니 그가 우러러 볼 수 있는 새로운 비마(飛馬)를 꿈꾸며 있다.

한없이 드넓고 눈부시게 푸르른 이 비호(飛虎)동산을 매일같이 거닐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말이다.